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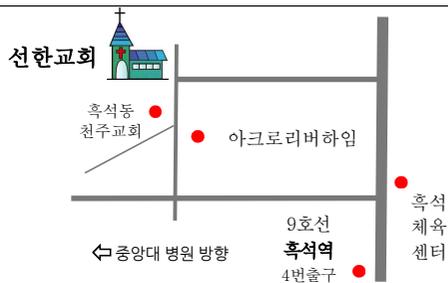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 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 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교육전도사 윤 영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희 태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장 로	조 계 승 (집사장)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유 신 웅, 조 윤 익		
	박 영 근, 윤 호 중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سی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맛보아 알지어다 (시34:8)
Taste And See

실 천 사 항 3가지 습관 기록 교사훈련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린도전서 7:7)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8장 (통일찬송가 9장)
교 독 문	교독문 20 (시편 33편)
찬 양 과 경 배	605장 (통일찬송가 287장)
대 표 기 도	유 신 응 장로
말 씬 봉 독	고린도전서 7장 1 ~ 16절
설 교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교회여 일어나라
축 도	임춘배 목사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지혜로운 자의 30가지 습관 2 (잠23:1-16)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배 안 내

1. 주일예배: 당분간 주일예배는 1,2부 각 20명씩 드립니다.
2.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는 대면으로 드립니다.
3. 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 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2.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3차):
이번주 범위 (대상1장~대하26장)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3.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우상숭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니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아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니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니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 시다.

**4. 교 사 경 건 서 적
읽 기
(교육위원회 광고)**

금년 교사수련회는 경건서적 읽기로 대체합니다.
모든 교사들은 '지저스 스폰'(오인숙 선교사님 신간)을 읽고 각 부서별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교 우 동 정

이성법 집사 모친상
고인 : 故 "정선희" 어머니, 2021년 5월 28일 소천
장지 : 공주 신흥선영, 발인 : 5월 30일 7시30분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개인 경건 훈련에 지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의 예배가 회복 되도록

찬송 : ‘주 사랑 안에 살면’ 397장(통 454)

본문 : 창세기 36장 6~8절

말씀 :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죽 한 그릇에 팔았으니 불공정거래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또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어머니와 동생에 의해 뺏긴 사기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긴 에서에게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한 후 아들의 자리는 오롯이 에서의 차지였습니다. 그는 세 아내와 결혼하여 다섯 아들을 낳았으며, 실질적인 이삭의 후계자로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에서는 큰 부와 번성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죽은 후 에서는 떠났습니다. 돌아온 야곱을 형의 아량으로 맞아 주고, 가나안을 야곱에게 물려주고 떠납니다. 창세기 36장은 “야곱의 형 에서는 세 아내로부터 다섯 아들을 낳고, 가나안을 떠나 세일에 정착한 후 열 손자를 보아 13개 족장이 되게 하였고 여덟 왕이 대를 이어 다스리는 에돔 왕국을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에서는 가나안의 의미를 매우 잘 아는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그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도 떠났습니다. 가나안 땅이 비좁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이자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땅을 떠납니다. 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었기에 가나안을 쉽게 포기했습니다. 6절을 보면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 ‘자기 가축’ ‘자기가 모은 재물’이라고 나옵니다. ‘자기’라는 단어가 많이 강조됩니다. 어디로 가든 자기 힘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일산은 ‘털이 많은’, 곧 ‘관목이 우거진’이란 뜻을 가진 산악지대입니다. 사냥과 목축에 좋은 곳입니다. 강성한 요새가 될 수 있는 땅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것처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한 것처럼 세일이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가나안을 미련 없이 떠난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실제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보다 훨씬 먼저 강성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호리족의 땅, 이방인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에서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는 없었습니다. 에서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기준은 신령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눈앞의 이익에 있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에돔의 운명은 역사 속에서 극적으로 바뀝니다. 가나안의 야곱 후손은 메시아의 조상 이스라엘이 됐고 지금까지도 노벨상을 휩쓰는 민족이 됐습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은 멸망해 사라진 민족이 됐습니다. 가문과 민족의 운명이 지금 당신의 선택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 목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 (고전7:1-16)

서 론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에게 해야 할 의무를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3절).

1. 남편과 아내의 의무

- (1)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냐’(1절)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2절)
- (2) 결혼후 남편과 아내는 각각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4절).
- (3) 일정기간 기도할 목적 외에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5절)
- (4) ‘독신의 은사’를 받았거나 절제할수 있다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절제할수 없으면 결혼하는 것이 낫다(7-9절).
- (5) 결혼한 자들은 서로 갈라서거나 버리지 말고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10-16절).

본 론

2. 교훈

- (1) 배우자에 대한 의무는 무엇인가?
- (2)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 (3) 부모로서 아름다운 신앙과 가정생활에 대한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결 론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유신웅 장로

윤호중 장로

매일 Q.T.		하나님과의 동행 조건, 언약 준수와 거룩함	날짜 : 5월 31일
찬양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본문	출애굽기 24:12-18		
말씀요약	하나님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맹렬한 불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그 산에서 40주야를 머뭙니다.		
목상질문 1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 24:12-14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금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가정과 공동체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목상질문 2	맹렬한 불 같은 하나님의 영광 24:15-18 시내산 언약 체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보였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거룩함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한절목상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접촉'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부재를 하나님과의 '단절'로 여겼습니다. 이에 백성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을 만들어 의지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이어야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뜻하신 바를 모세에게 알리시는 하나님,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돌판을 받을 모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지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을 떠올려 봅시다. 아침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을 준비를 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사수하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복 있는 사람”	
찬양과 기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새 28, D)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자녀 넷을 두신 한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얼마 후, 장녀인 성도님이 가정 심방을 요청하셨습니다. 일정을 잡아 성도님 가정에 심방을 갔습니다. 그곳에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권사님의 네 자녀와 손주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p> <p>그분들의 모습을 보니 사회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손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p> <p>예배를 위해 준비한 탁자 위에는 커다랗고 두꺼운 책 네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싶어 들춰보니, 손으로 필사한 성경책이었습니다. 권사님이 매일 매일 사랑하는 네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성껏 성경을 필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완성한 성경 네 권을 책으로 제본해 자녀들 각 가정에 한 권씩 유산으로 물려주었다고 합니다.</p> <p>이 모습을 보며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가정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밤낮으로 여호와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던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유업으로 받은 가정이 얼마나 복된지를 느끼는 심방이었습니다.</p> <p>어떻게 하면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성도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p>		
말씀 나누기	시편 1:1-6		
목상포인트	의인을 상징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악인을 상징하는 '바람에 나는 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웅만한 바람에도 끄떡없지만, 겨는 사방팔방으로 날려다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양분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만,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로 행하는 사람의 종말은 멸망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나요? 그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인가요? (1~3절)		
적용하기	내가 피할 악한 생각, 죄의 길, 오만한 자리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 결단할 삶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말씀을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악한 죄와 죄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의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라	날짜 : 6월 4일
찬양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본문	시편 4:1-8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시기에 죄짓지 말고 의의 제사를 드리며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우리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주님뿐입니다.		
목상질문 1	대적들을 향한 기도 4:1-5 시편 기자는 불의한 권력층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경고하나요?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목상질문 2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4:6-8 시편 기자는 자신이 누리는 기쁨을 무엇과 비교해 묘사하나요? 곤고한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시편 4편 4절 죄인의 속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헛되고 거짓된 것으로 바꾸기를 좋아합니다. 죄란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게도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영광과 존귀를 추함과 더러움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꿉니다. 진리 없는 세상은 패역을 진리와 도리로 둔갑시킵니다. 하지만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도리를 깨달아 승리대로 살게 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불의하고 비참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제 마음에 두신 기쁨과 평안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매 순간 지켜 주소서. 언제든 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한결같이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매일 Q.T.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날짜 : 6월 1일
찬양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본문	시편 1:1-6		
말씀요약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 맺고 형통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합니다.		
목상질문 1	복 있는 사람의 삶 1:1-3 복 있는 사람은 '따르고, 서고, 앉는' 행위에서 악인과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내가 말씀을 따르기 위해 멀리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목상질문 2	악인의 삶과 그 결과 1:4-6 악인의 길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한절묵상	시편 1편 3절 열매는 때가 되어야 맺힙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사시사철 열매 맺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레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묵상한 말씀이 맺는 삶의 열매는 제철 과일처럼 좋은 맛과 향을 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제 삶이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내리길 원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따르고 서고 앉아야 할 순간을 잘 판단해 하나님 뜻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거센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며 즐거이 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하나님이 세우신 왕, 곧 그 아들에게 순종하라	날짜 : 6월 2일
찬양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본문	시편 2:1-12		
말씀요약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시온에 왕을 세우시고 자기 아들이라 하십니다. 군왕들과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할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목상질문 1	시온에 왕을 세우심 2:1-6 하나님은 '여호와와 그분이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나라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상질문 2	왕에게 주신 권능과 이방 나라에 대한 경고 2:7-12 시온에 세우신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능은 어떠한가요? 왕이신 하나님 아들을 향한 내 마음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요?		
한절묵상	시편 2편 7-9절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아들로 삼으시고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하십니다. 이 유업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이방 나라를 철장으로 깨뜨리고 부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선교는 명끝까지 이르러 세상의 군왕들을 굴복시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완전한 피난처이신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소리 높여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제게 끊임없이 부어 주셔서 말씀에 순종의 입맞춤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매일 Q.T.		온전한 신뢰로 얻는 두려움 없는 평안	날짜 : 6월 3일
찬양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본문	시편 3:1-8		
말씀요약	시편 기자는 많은 대적에게 위협당하지만, 자신의 방패요 영광이신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응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주님이 붙드시니 천만인이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며, 악인을 응징하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상질문 1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3:1-4 대적이 둘러싸고 치는 가운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무한한 신뢰를 갖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3:5-8 하나님께 대한 시편 기자의 신뢰는 어느 정도인가요? 평안히 눕고 자고 깨어나는 삶은 결국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한절묵상	시편 3편 7-8절 대적들은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라며 시편 기자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원수의 조롱을 기도로 물리칩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쌓이면, 구원을 바라는 간구는 구원을 확신하는 '선포'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담대히 노래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까닭은 환난 속에서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기도하면서도 근심으로 잠 못 이루고, 겹쳐 오는 고난에 하나님마저 의심했던 연약함으로 고백합니다. 제 인생을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평안함으로 무릎 꿇게 하소서. 완전한 도움과 방패 되시는 주님이 일어나시니 저도 거침없이 일어서게 하소서.		